"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, 깨끗한 대청호"

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!

-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.

 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.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.

-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.
-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.

 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.
 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.

-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.
-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
- 세차,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.
-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.
-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.

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야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.
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.
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.
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.

(사) 대청호보전운동본부 (306180)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-11
전화 042)930-7340,1 | 전송 042)930-7342 | 홈페이지 http://www.daecheong.or.kr | 이메일 dch2004@naver.com

대청호 소식 2023 봄 vol.139

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, 깨끗한 대청호

대청호 소식

vol.139
2023 봄

금강유역 하천에서 만나는 물고기

쏘가리

Siniperca scherzeri, 꺽지과

크기 몸 길이는 약60~70cm이다.

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황갈색 바탕에 둥근 갈색 반점(표범무늬)이 흩어져 있다.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그리고 꼬리지느러미에는 작은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. 가슴지느러미를 제외한 각 지느러미에 작은 반점이 있다. 몸 전체가 노란색을 띠며, 흑갈색 반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개체가 간혹 나타나는데, 이것은 백화 현상(albinism)이 나타난 개체로서, '황쏘가리'라 한다.

주요 형질 몸은 유선형으로 옆으로 납작하고, 머리는 약간 위아래로 납작하다. 머리가 길고, 그 중앙의 약간 앞쪽에 눈이 있다. 입은 크며 이빨이 날카롭다.

서식지 물이 맑으며 큰 자갈이나 바위가 많고, 물살이 빠른 큰강 중류에 살며 바위나 돌틈에 잘 숨는다.

먹이습성 육식성으로 물고기와 새우류를 섭식한다.

행동습성 산란기는 5~7월로 밤에 여울의 자갈 위에 무리지어 알을 낳는다. 대형 댐호에서는 호 안의 돌무더기에 날을 낳는다. 황쏘가리의 경우 천연기념물 제190호이다.

< 친환경농산물 농민 직거래 장터 >

매주 수요일은

대청호 농산물 직거래 '생생장터' !

얼굴 있는 생산자와 지혜로운 소비자의 만남!
대청호주변 소규모 농가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
합리적인 가격에 직거래 합니다.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을
만나는 '생생장터'입니다.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1층으로 오세요!

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~ 오후2시
장소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1층

<금강보호캠페인> 가축분뇨 적정관리 요령

- 빗물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, 방지턱을 설치합니다.
-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시설, 퇴비사 시설, 도랑을 설치합니다.
- 가축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뿌릴 때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합니다.
- 바뀐 가축분뇨법을 꼭 읽고 숙지합니다.